

진여 작용으로 중생을 교화하다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복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해석본>에서 제시된 기신론의 중심 테마에 관한 설명 중 삼대(三大) 곧 체(體)·상(相)·용(用)은 사물을 설명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기신론의 독창적인 방법이다. 체(體)란 본체라는 뜻으로 보이지 않는 근원인 제1원인(第一原因)을 말하고 상(相)과 용(用)은 보이는 결과, 현상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기신론이나 대승경전에서의 부처는 진여를 인격적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한 말이다. 진여 곧 본래의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행하던 시절에 큰 자비심을 일으켜 남을 위해 덕을 베푸는 일을 실천한다. 특히 중생들을 포섭하여 그들을 이롭게 하고 참되게 하려고 온갖 방편을 써서 이타행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노력이 모두 진여의 작용이다.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행적(先行的) 노력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불보살의 경우에는 본래 수행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실천하는 행이므로 본행(本行)이라 한다.

그런데 이 진여의 작용이 수행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례를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다. 진여 그 자체는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것이다. 또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진여가 바로 마음 안에서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하지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식(識)의 경계가 차별이 있다. 분별사식(分別事識)이란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의 육식(六識)의 경계다.

모든 형태는 法身서 나와 색과心, 둘이 아닌 하나

이 분별사식에 의하여 범부나 이승(二乘)들이 보는 진여의 용을 응신(應身)이라 한다 했다. 마음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응신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의 전식(轉識)이 움직여 나타난 것임을 모르고 마치 밖으로부터 온 것처럼 생각하

여 그 나타난 대상에 물질적 요소가 있다고 여긴다. 이 응신은 중생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며 범부의 거친 마음에 대응하여 나타난다.

처음 뜻을 낸 보살들의 지위로부터 수도의 과정을 거의 완성한 보살들의 지위에 이르기까지 거친 마음이 사라진 미세한 상태의 업식(業識)으로 보는 진여의 작용을 보신(報身)이라 한다. 이 보신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온갖 아름다운 형태와 육체적 기능 및 특징들을 다 갖추고 있다. 동시에 이 불신이 거처하는 국토에는 온갖 종류의 장엄이 있다. 어디에나 나타나는 보신은 공간적으로 제한 받지 않고 출현하며, 항상 위대한 지혜의 힘을 간직하고 있다. 바라밀다의 완덕(完德)을 갖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 보신은 진여가 혼입하는 신비로운 힘에 의하여 성취되는 것이다.

보살들의 경우에는 마음에 조잡하고 거친 생각이 사라져 다란 미세한 업식으로 진여를 보기 때문에 진여의 법이 마음 자체임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외형의 모습은 한정적으로 범위가 제한되지 않고 인간의 사유에 의해 무한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진여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진여의 참된 이치를 외갈래의 방식이 아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매 속에서 진여를 보게 되면 온갖 종류로 장엄된 모습이 무한하게 나타난다. 나아가 업식을 여의면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은 업식을 여의면 능견(能見)과 소견(所見)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색상도 없으며 바로 진여 자체에 결합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제불의 법신은 색상(色相)을 떠나 존재한다고 했는데 색상이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 형태이다. 다시 말하면 눈이 볼 수 있는 감각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색상을 떠나 있는 법신이 어떻게 색상을 나타낼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법신이 곧 모든 색의 체이며 근원이라는 것이다. 모든 물질적 형태는 진리의 몸(法身)에서 나온 다. 그러므로 색(色)과 심(心)은 둘이 아닌 하나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니 형태니 하는 색은 생멸심, 즉 업식이 전식(轉識), 현식(現識)으로 전환하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색이 곧 심이요 심이 곧 색이다. 또한 생멸심이란 근본에서 볼 때 진여의 작용이므로 이를 지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윤회와 無我에 대해

수행승 돌아 와서 나는 대화다. 그들은 집요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영혼의 존재와 무아(無我)부분에 대해, 그리고 육도윤회의 실체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을 옮긴다.

판관대장경에 담긴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세제불교(世諦佛敎)에 대한 방편설과 진제불교(眞諦佛敎)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진제와 세제 불교에 있어 양대 대표적 가르침은 중도사상(中道思想)과 연기법칙(緣起法則)입니다.

한국불교에서는 여지껏 중도(中道)를 좌(左)와 우(右)로 기울지 않는 균형과 조화로 받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교의 중용(中庸)사상일 뿐 불교의 중도(中道)에는 균형과 조화, 변두리와 모서리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의 중(中)은 정(正)으로써 양변불락(兩邊不落)이 아닌 양변무애(兩邊無礙)이자 무변중심(無邊中心)

못 합니다. 심지어 일생을 오롯이 수행해온 어느 수좌스님까지 무아(無我)는 인정하나, 미세작용의 진여(眞如)의 존재에 미련을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상호의존적 연계작용으로 성(成), 주(住), 괴(壞), 공(空)과 생(生), 주(住), 이(離), 멸(滅)이 있을 뿐, 영원불변하는 아트만(Atman)의 존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에는 어느 경전이든 영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으며, 자성(自性)과 마음(心), 불성(佛性) 등이 주관적, 주체적 주인공으로 등장할 뿐입니다. 불교를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면 누구나 삼론(三論宗)의 중론(中論)과 심이문론(十二門論)·백론(百論)을 연구해야 합니다. <중론>과 <심이문론>은 나가르주나(유수)의 가르침입니다. 백론은 현재 절반인 오십론만 전해져 오고 있는데, 유수보살의 제자인 제바(提婆)보살의 가르침이며,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가르주나 역시

이르는 곳이 중앙이자 정토세상 '수처작주' 가르침이 바른 中道

입니다. 변두리와 모서리, 좌(左)와 우(右)도 없는, 이르는 곳마다 중앙이요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인, 임제선사의 수처작주(隨處作主)가 불교의 바른 중도(中道)인 것입니다.

삼론종(三論宗)에서도 팔불중도(八不中道)를 팔불정관(八不正觀)과 팔불중관(八不中觀)으로 해석을 넓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中)은 대(對)와 변(邊)에서 자유로운 것이며, 정(正)은 미(迷)와 사(邪)에서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중도(中道)는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가운데(中)가 아니라 언제나 동서남북의 중앙에서 오늘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고 넉넉하게 행복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유인으로서의 가운데(中)를 누리는 중(中)으로 해석함이 옳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기법칙(緣起法則)을 교과서적으로 원인과 결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창조주인 브라흐만(Brahman)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트만(Atman)의 존재는 은근히 인정하려는 뿌리 깊은 모순을 한국의 불교도들은 펼쳐버릴

중론에서 팔불중도를 등장시키며 정관(正觀)과 중관(中觀)으로 무애중도(無礙中道), 무득중도(無得中道)에 이르는 진리의 세계를 펼쳐 보입니다. 무아(無我)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히 무아(無我)를 인식시키며 명쾌히 아트만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과거 세상에 내가 있었다는 것은(過去世有我)/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是事不可得)/ 과거 세상에 있었던 내가(過去世中我)/ 금생의 내가 될 수 없도다(不作今世我).”

또한 제바보살의 백론(百論)에서도 영혼문제, 윤회문제가 등장하는데, 백론에 등장하는 영혼은 신(神)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고, 육도(六途)가 아닌 오도(五途) 즉 천상, 인간, 축생, 지옥, 아귀만 등장합니다. 유수와 제바보살이 불멸(佛滅)후 700~800년 이후 인도사람들이고 보면 그 당시까지도 아수라(阿修羅)의 등장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거듭 밝혀 두지만 육조단경에서도 혜능선사는 사후의 극락이 아닌 당생정토(當生淨土)요 당생윤회(當生輪廻)에 대한 가르침을 펴고 있음을 잊지 말 일입니다.

보살은 자비심의 보시로 근본 삼아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⑥ 보시의 근본바탕

菩薩悲心以施為體。世間眾生以結使為體。純以眾苦以為一味。為得樂故行悲心施。日以照明為用。月以清涼為性。菩薩以悲為體。智慧及財施安樂於一切。如從歌羅邏乃至老時十時差別雖至於老不捨孩之相。菩薩虛渴施心救濟眾生亦不捨凡夫。離欲至於非想不離凡夫之相。菩薩不捨施心救濟眾生亦復如是。欲除施渴當飲大施之水。施渴暫息除渴不已。愛樂施故。一切眾生依食而存。大悲亦爾。依施而存。(보살비심이시위체. 세간중생이결사위체. 순이중고이위일미. 위득락고행비심시. 일이조명위용. 월이청량위성. 보살이비위체. 지혜급제시안락이일체. 여중가라라내지도시십시차별수지어노불사영해지상. 보살허갈시심구제중생역불사

범부. 이욕지어비상불리범부지상. 보살불사시심구제중생역부여시. 육제시갈당음대시지수. 시갈감식여갈불이. 애락시고. 일체중생의식이존. 대비역이. 의시이존.)

번역

보살은 자비심의 보시로써 근본바탕으로 삼고, 세상의 중생은 얽히는 것으로써 근본바탕으로 삼으니, 모든 고통을 깨끗이 없애 한 맛을 내게 하며, 기쁨을 얻도록 자비심으로 보시를 행해야 합니다. 해는 밝게 비추는 것으로 작용(用)을 삼고, 달은 청량함으로 성품(性)을 삼으니, 보살은 자비심으로써 근본바탕을 삼기에 지혜와 재물로 보시하여 일체를 안락하게 합니다. 가령, 태내에서부터 늙기까지 열 가지 차별된 시기가 있

고, 비록 늙었다 하더라도 어린이 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보살은 보시에 무마된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되 범부의 모습을 버리지 않습니다. 욕심을 여의고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에 이를지라도 범부의 모습을 버리지 않습니다. 보살은 보시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역시 이와 같습니다. 보시의 목마름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응당 큰 보시의 물을 먹어야 합니다. 보시로 갈증이 잠시 쉬어도 다른 갈증이 그치지 않는 것은 사랑과 즐거움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일체 중생은 먹을 것을 의지해 살아가는데, 큰 자비심도 역시 이렇게 보시에 의지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해설

보살(菩薩)이라는 말은 '보리살타(bodhisattva)'의 한역이다. '보리(bodhi)'는 깨달음이며, '살타(sattva)'는 중생이라는 말이다. '깨달음 중생'이라는 뜻도 있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중생'이라는 뜻도 있다. 그러나 '부처

님의 마음과 행을 삶에 구현하는 이'라는 숨은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보살은 자비심의 화신일 수밖에 없다.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고통에서 저 열반의 언덕으로 이끌어주는 친절한 안내자가 된다. 그런데, 이 보살의 자비심의 근본바탕을 <대장부론>에서는 보시라고 강조하고 있다. '바탕'이라는 말은 '근본'이라는 말이다. 근본은 뿌리다. 나무의 줄기와 잎을 내게 하는 힘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이다. 집으로 치면 기초이며, 주춧돌이다. 포레위에 집을 지을 수 없고, 뿌리 없는 나무가 자랄 리 없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 씀과 실천행이 보시에 있다고 하였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의 32응신을 살펴 보면, 관세음보살은 32응신으로 화현해 보살도를 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곧 내 곁에서 누군가 보살도를 행한다면 그가 곧 관세음보살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내가 보살도를 행하면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의 화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보살도는 곧 대자비심이며, 역시 보시행에 의지하여 존재한다.

영남범패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에 교육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영남범패를 탐마할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 개강일시 : 2016년 5월 26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길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 1로 49 506호)
- 수 강 일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① 상용의식 및 재의식
② 사물다루는 법
③ 바라 및 승무작법, 화청 등
- 수강자격 : 삭발의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문의전화 : 031)483-5528 (길지사 석문스님)

사) 대한불교불음원
경기교육원

漢文 / 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

“漢文/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으로 십여 년간 공부하시고 사랑해 주신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감사 드리오며 마지막 수정판으로 영불과 경전공부 한글 영불수행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만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 제1권 (예경/각청)
- 제2권 (천도/시식)
- 제3권 (수계/방생)
- 제4권 (장의)
- 제5권 (점안)
- 제6권 (독송집)
- 제7권 (토속의식 모음집)

발행인 : 금불 장엄사 주지 성묵 스님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4길-54)
주문처 : 054)974-1345 (장엄사) 010-7144-7339 (총 무) 010-5277-8024 (스 님)

增補 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이름 한번 잘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改名)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시중(市中)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작명서(作名書)들이 한결같이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에 맞추어 이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두 사람의 이름이 똑 같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이라면, 두 사람은 똑 같은 이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논리(論理)가 성립된다. 이에 저자(著者)는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고 본인의 사주(四柱)와 “띠”에 맞추어 짓게 한 것이다. 30여 년간 연구한 저자의 역리작명법(易理作名法)으로는 두 사람의 이름이 똑 같아도 “띠”가 다르면 운명이 다른 과상(卦象)이 나온다. 좋은 이름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은 물론이고, 주역팔괘(周易八卦)에 맞추어 지어야 한다. 주역(周易)을 전혀 모르는 일반 독자들도 누구나 이 책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설(解說)을 하였기 때문에 이 책을 만나는 순간 눈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 사람의 이름이 길명(吉名)인지 혹은 흉명(凶名)인지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다.

- 머리말 중에서 -

※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로 발표된 大法院 선정 人名用 漢字 8,142자 전부 수록

易理作名法 : 503쪽 (40,000원)

■ 입금계좌 : 기업은행 530-002326-01-014 손상용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324-2468 / 010-9391-5699

사랑하는 자녀, 손자, 손녀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천상의 향기 沈香 眞香

● 청소년 선재동자 합장주 ●

청소년 영성을 치유해 주는 물에 가라앉는 신비의 침향 합장주

침향(沈香)은 천상의 향기와 하여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여 줍니다. 연꽃이 흙탕물에서 피어도 물들지 않는 것처럼 침향은 마음의 정서를 정화하여 주는 신비의 향기입니다. 산란한 마음, 나태한 마음, 게으른 마음을 여과하여 긍정과 용기로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성내고 화내고 분노할 때 손목에 한 침향주를 코에다 대고 향기를 1분 정도 3번 이상 맡으면 천상의 범천이 향기로 나타나 성내고 분노한 마음을 잠재워 줍니다. **함몰원에서 보급하는 침향은 인도산으로 물에 가라앉는 신비의 침향 나무로 만든 영주(합장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선물하시어 선재동자 같은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인연의 기회가 되어 모든 면에서 자유자재한 선재동자의 지혜를 얻어 축복받는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성용 5만원 남성용 6만원

주 문 : 010-3867-7379(문자·전화), 010-4475-6611(문자)
입 금 처 : 농협 351-0861-9260-63 (예금주 보현사)
생산·보급처 : 불교NGO (감보디아 향불원)